

3월 보건 소식지

입학과 진급을 축하드립니다!



신입생의 입학과 재학생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청소년 시절의 건강과 올바른 습관은 평생 건강의 밑거름이 됩니다.
손 씻기, 규칙적인 생활, 식사 후 양치질하는 습관 등 좋은 건강 습관으로
내 몸의 건강지킴이가 되어봅시다.

슬기로운 보건실 이용 안내

보건실은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이 이뤄지는 곳입니다.
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서 모든 학생이 편안하게
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.

- 보건실 위치: 1층
- 보건실에서의 요양 안내
 - 보건실에서의 요양은 1시간 이내로, 2시간 이상 요양 필요시 부모님과 상의 후 병원진료 또는 가정에서 안정합니다.
- 수업 중에 몸이 아프면 교과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보건실을 방문합니다.
-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병원을 다니거나 집에서 약을 먹고 왔다면 미리 보건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
- 보건실에서는 아픈 친구를 위해 조용히 합니다.
-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보건실에 와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.

학교 응급환자 관리

위급한 상황일 경우 (담임 및 보건교사가 동행)

- | | |
|----|--|
| 상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도폐쇄, 심한 호흡곤란 ▪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, 개방골절인 경우 ▪ 심한 출혈, 의식이 없을 때 |
| 절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건실에서 응급처치→부모님께 연락 (상황, 후송병원 안내) ▪ 119나 직원 차량을 이용, 병원으로 긴급 후송 ▪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학교안전공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 주십시오. ▪ 생명 및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발생시 119를 이용합니다. |

강영병 관리 안내

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강영병에 감염되었거나, 강영이 의심되거나, 강영 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.

이는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·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강영병 감염이 의심되면 학교에 연락 후, 진료를 먼저 받도록 합니다.

출석 인정을 위한 서류

- ▣ 진단서/ 소견서/ 진료확인서(진단명/ 격리요함 등)의 의사 소견, 병원/ 의사 직인)를 첨부해 주시면 출석 인정 됩니다.

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 후송 시 (학부모님께 인계하여 후송)

- 경미한 부상, 끊어져 붙합해야 할 경우
- 엉좌(삔 경우), 단순 골절이 의심될 때
- 단순 내과 질환, 고열, 단순 외상, 단순 안과적 상해 등
- 보건실에서 응급처치 후 학부모님께 연락, 인계
- 학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(또는 후송 담당교사)가 이송함을 원칙(병원 선택은 학부모님께 위임하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인근 병원으로 이송)

흡연예방교육+금연구역 안내

3차 흡연 예방교육

3차 흡연이란?

담배 연기가 표면에 달라붙은 뒤 빠져나오는 것으로 담배를 피운 뒤 며칠, 몇 주,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

3차 흡연으로 인한 내 가족 체내 니코틴은 얼마나 될까?

담배를 피지 않는 가족의 모발 속 니코틴 농도를 조사해보면 비흡연자 가정보다 두 배가량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

3차 흡연의 피해를 줄이려면?

☞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.

학교는 금연구역입니다

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물론 버스정류장, 음식점, 카페 등을 우리 모두 금연구역입니다.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전자담배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



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

미세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먼지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몸 속으로 침투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비염, 천식, 심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염증과 면역반응을 일으켜 응급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를 이기기 위한 수칙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.

미세먼지 예방 4 수칙



부모님과 함께하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성폭력,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,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이 성적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.

- ▶ 장난으로 친구의 가슴이나 성기, 엉덩이를 만지는 것
- ▶ 장난으로 친구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도록 강요하는 것
- ▶ 인터넷을 하다가 발견한 야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보내는 것
- ▶ 성폭력을 할 때 맘을 보는 것
- ▶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것
- ▶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기
- ▶ 신체변화(몸집, 몸무게, 가슴크기 등)로 놀리기
- ▶ 기습뽀뽀, 포옹, 뒤에서 껴안기, 무릎에 앉기
- ▶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
- ▶ 음란물(사진, 잡지, 동영상, 야설)을 보여 주거나 성행동 흉내 내기
- ▶ 게임벌칙으로 스킨십 강요

성고충 상담창구(보건실)

본교에서는 학생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성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,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

남자상담원: 학생부장 오거례선생님

여자상담원: 보건 윤효진선생님